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진정한 내적, 외적 성장의 지름길은 구역모임에서

활발한 구역모임, 88% 모여

구역장들의 구역모임 운영 및 공과 인도가 중요

올해부터 구역모임 공과의 체계가 대폭 변경됐다. 지금까지의 공과는 예배중심으로 구역장이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함께 돌리면서 읽는 식이었다. 그러나 구역모임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밀도있게 진행하기 위해 구역공과가 개편됐다.

일반적인 면에서 상호토의식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구역장들은 구역공과에 나오는 질문들을 잘 살피고 구체화 시켜서 구역원들에게 질문하고 서로 답하면서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배우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도록 하고 있다.

구역은 교회의 세포조직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가 세포조직을 통해 성장하듯이, 교회성장은 구역의 활성화에 의한 배가원리에 의해 성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므로 구역모임의 활성화는 교회성장의 지름길이며 교회 내적성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은 생명력과 역동성을 상실한 구역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으며 구역의 침체는 곧바로 교회의 침체를 가져 온다는 것을 볼 때 분명하다.

최근 우리 교회의 각 교구 구역모임의 비율이 88%에 이르러 활발한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이를 교회의 내적성장 외적인 성장에 연결시키기 위해 구역모임의 내용을 보다 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역공과를 개편하여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역모임이 단순한 친교로 전락되면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기에 구역모임이 말씀과 성령과 교제로 뜨거워지며 갈급한 심령에게 안식처가 되고, 대중 속에서 소외감을 당하는 성도들과 초신자들에게 새로운 교제 장

소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구역모임은 인격적인 만남과 삶의 본을 통한 현장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모임이다. 또한 각 구역모임을 전도의 전초기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지역에서 모이는 구역모임은 불신이었이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교구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생각하며 구역모임 인도자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

이 주고 있다.

① 구역장은 구역모임에 전 구역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② 구역장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구역원들이 구역공과 내용을 1주일 전에 미리 예습해 오도록 권면해야 한다.

③ 예배 및 구역공부는 40분을 진행하고, 구역공과를 인도할 때 구역장은 토의와 적용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개인의 삶으로 연결시켜 주는데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④ 구역공과를 마무리 할 때는 함께 적용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⑤ 2부 친교시간은 40분 정도의 시간으로 새가족 환영, 개인 기도제목과 구역 기도제목(특히 전도를 통한 배가를 위해)을 가지고 통성기도를 하고 구역원 간에 다과 및 교제를 나누어 사랑이 넘치는 구역모임이 되도록 진행해야 한다.

교구별 양육위원 확정

교구에서 새가족을 특별하게 돌보는 일

새가족위원회는 본 교회에 등록하고 양육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교구의 추천과 당회의 허락을 받아 교구양육위원 84명을 확정하였다. 이들은 적어도 한주일에 한번씩 교구에 흠어져 있는 새가족들을 접촉하여 돌아보고 그 결과를 새가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교구양육위원들을 위한 실무 교육은 다음 주일(13일) 15:00-16:30까지 갈릴리 홀에서, 임명식은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임명된 교구양육위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하기를 바라며, 교구별 명단은 아래와 같다.

- 1교구: 권택진 전방자 정하숙
- 2교구: 김정운 김영일 조향순
- 3교구: 문인자 김숙연 김승옥
- 4교구: 심효숙 김영숙 전성실
- 5교구: 공석생 이순희 김재운
- 6교구: 김선자 왕인숙 안춘자
- 7교구: 김병희 성향록 이현숙
- 8교구: 김의숙 김필녀 이도영
- 9교구: 함미자 오인숙 이현진 이경희 김한원 임선영

- 10교구: 허혜균 안옥림 이계옥
- 11교구: 김은숙 신희순 김지현
- 12교구: 이금순 지순애 황종림
- 13교구: 조복덕 유호순 유병순
- 14교구: 박명엽 김영숙 김경자
- 15교구: 홍화숙 김영은 윤화숙 노순옥 이옥자
- 16교구: 김계희 강신숙 이국숙 김금순 정혜인 이정자
- 17교구: 김숙자 김경애 김복희
- 18교구: 박영희 박순옥 박현혜 김영혜 서양숙
- 19교구: 박정숙 강순금 임통개 이수자 이순자
- 20교구: 전옥희 최미정 황영림 이경효 유금순
- 21교구: 신소자 문경희 임영자
- 22교구: 윤정미 오화자 서화자 유주옥
- 23교구: 이명자 김경자 양승남

2월 정기당회에서 결정

교회내 각 부서에서의 취사 및 상거리에 의한 음식물 반입 절대 금지키로

취사는 식당에서만, 가정에서 단체급식을 위한 음식물 반입도 삼가하기로

2월 정기당회에서는 교회 내에서의 취사는 식당을 제외하고는 어느곳에서도 금지토록 하였으며 주일날 교회 외부로 부터 상거리에 의한 음식물을 들여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결정하였다.

이와같은 결정은 온전한 성수주일과 화제예배를 위해서 오래 전에 당회가 결정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여러 부서의 봉사자들은 대개 새벽에 집을 나와 종일 봉사하고 틈틈이 식사를 하는 분들로서 봉사시간에 쫓겨 식당에서 긴 시간 줄

을 서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취사하는 예가 있었다.

당회에서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봉사시간에 쫓기지 않는 성도들은 봉사자들을 위해서 식당의 한가한 때를 이용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지참하는 것은 장려하나 단체를 급식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오는 일도 가급적이면 삼가해 줄 것을 교육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당회는 온 성도들이 당회의 이번 결정을 자진하여 지켜줄 것을 바라고 있다.



장로 세미나 지난 2월 1일 오후 7시부터 담회실에서 장로 세미나를 가졌다. 가나안 제2농학교 교장인 김범일 장로를 강사로 모인 세미나에서 김 장로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꿈, 확신, 결단력, 인내력을 갖춘 개척정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참석한 장로들은 함께 강의를 듣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세미나를 1년에 몇차례 가질 예정이다.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감람산에서의 예언'입니다. 일명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설명해준 종말론적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실 때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께 가리켜 보이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참 아름답죠?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에도 "둘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 이 예언의 성취

주후 70년에 이 예언의 모형적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페스파니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그의 아들 디도대장이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마침내 거기에 살고 있었던 백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둘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은 주후 70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예언의 성취가 끝났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또 한번 성취됩니다. 그래서 70년에 성취된 이 성취를 모형적 성취라고 부르고, 재림때 이루어질 성취를 원형적 성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으로 성취가 될 텐데,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에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세상 끝의 징조

본문 3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1)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4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가장 중요한 징조는 미혹입니다. 매년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종류의 미혹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모든 다 미선교회 회원들만이 공중에 휴거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쪽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마침내 다미선교회의 책임자였던 이장림 목사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댔었다는 죄목으로 구속이 되었다가 얼마 전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와 같은 미혹은 이 세상에 처음에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전에도 '언제 어디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인데'라고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 제시한 미혹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미혹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00년이 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나까 구약시대, 4000년, 신약시대 2000년 해서 2000년 되는 날 예수님이 틀림없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2) 재림 전에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

첫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즉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다가오면 그때가 말세에 구체화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야만계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유럽의 여기

저기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했습니다(7절). 기근 하면 먼저 소말리아를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여기저기에 많은 기근이 있습니다. 1년에 3천만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실명하거나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지금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충헌강단



감람산에서의 예언

(마 24:1 - 14)



신 성 종

<목사·당회장>

잘고 있지만 그 중에 10억은 영양실조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LA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재산 피해가 굉장히 큼니다. 내년에는 일본의 동경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던 통계를 보면 20세기에 가장 많이 일어났고 그것도 후반부에 한 이상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불법이 생기고 사람이 식어버리리라고 했습니다(12절). 불법이 생겼었다. 비윤리적이고 법을 어기는 수 많은 불법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5절). 요즘 보면 소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300여명이나 되고 우리 나라에만도 한 80여명 됩니다.

3. 우리의 할 일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답입니다. 여기 "그러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많은 미혹과 불법에 있고,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

지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영을 잘 분별해서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함부로 먹어서는 안됩니다. 최근에 낙동강을 비롯한 강물들이 오염되어 물에서 악취가 나고, 심지어 벤젠같은 발암물질이 발견되어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제 말세가 될 때에 썩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물들을 쓰게 만들어 인구 1/3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이 물의 근원지에 떨어져서, 물이 쓰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에 죽게 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물 공해가 있을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식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은 마지막 때가 되면 썩이 떨어짐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이단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영을 잘못 분별하면 이단들의 말을 마치 생수인 것으로 착각하고 먹게 됩니다. 요즘 강이 오염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약수터를 찾는데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물이 더 더러운 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여기저기 부흥회 다닙니다. 여기저기 가니까 은혜가 있네 하면서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아무것이나 먹게 되면 큰 일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시대가 악할수록 재림의 때가 가까워짐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확신 속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사라지게 될 때에 이단은 그 사이로 뚫고 들어옵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 복음전파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재림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빨리 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은 재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단이 와서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때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패조함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그 날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우리 개개인의 종말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해서 깨어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재림의 예수님의 기다리면서 '주여 어서 오소서'라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허우허우를 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날을 맞으며 살펴 본 그리스도인의 삶과 제사 문제 ●

제사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점

홍 창 민

(목사, 새가족위원회 지도)

들어가는 말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쉽지 않은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 사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 속에 깊이 침식해 있는 조상숭배(제사)의 문제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는 조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조상숭배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경건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것은 분명한 예배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나 친척들이 불신자일 경우 조상숭배의 문제로 인한 갈등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다. 특별히 금주에 우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게 될 성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제사의 의미와 배경

유교에서 제사를 의미하는 제례의(禮)는 단어 자체가 '신은 인간에게 뜻을 전하고 인간은 신을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의미이다. 즉 제사는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하여 신을 섬긴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제사의 대상은 자연히 초월적 신의 존재이다.

유교에서 영혼불멸이나 내세에 관한 교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막연하게 저 세상이 있음을 믿는다. '돌아가신 조상님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까'라는 말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가족 관계가 계속됨을 암시한다. 그들은 사람이 죽는 순간 신으로 변하고 후손들과는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 교통한다고 믿으며, 살아있는 후손들은 제사를 통하여 죽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제사의 근본 동기는 제사를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효도의 뜻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조상의 영을 위함이다.

조상신이 굶주려 방황하면 그것은 불효요 친를 거역하는 죄악으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에도 효심으로 공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사회악을 조장하는 가장 큰 이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이러한 제사문제로 큰 박해가 있었다.

둘째 이유는 죽은 영을 위로함이다.

자기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한 많은 생을 보낸 영은 바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평소에 그가 생활하던 장소를徘徊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악신 역할을 한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죽은 영을 위로해야 후손에게 재앙이 제거된다고 믿는다. 특별히 이러한 요소는 유교적인 사상이라고 보기보다는 무속종교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셋째 이유는 후손의 실리적 계산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상신이 재앙과 축복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조상신이 노하여 자손에게 해를 끼치지만, 정성스러운 제사로 조상을 숭배하면 재앙을 쫓아주고 복을 내려주는 가정의 수호신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제사는 자연히 후손의 안녕과 번영에 직결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제사는 상당히 기복적이고 현실적인 이익과 직결된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제사

제사는 그 대상이 단순한 인간 부모가 아니다. 자손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소유한 신을 부리는 수단이 바로 제사이다. 제사가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의 수단이라고 말하지만, 죽은 영을 신으로 믿는 데 문제가 있다. 제사라는 수단을 통하여 신과 자손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것을 통해 신의 뜻을 받들고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누리게 되므로 제사는 기독교와 공존이 불가능한 이교적인 행위이다. 그렇다면 제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사람)에 예배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예배를 드리거나 경배하는 행위는 곧 우상 숭배이다. 성경은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다(제1계명, 고전 10:14). 제사가 비기독교적인 것은 제사의 대상이 인간이 아닌 자손의 길흉을 주장하는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직 자연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다.

둘째로 성경은 죽은 영에 대한 후손들의 할 일에 언급이 없다. 제사는 결단코 부모공경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부모공경의 사상은 유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성경은 부모공경을 더 강조하고 있다(제5계명, 엢6:1-3). 그러나 이미 별세한 부모나 조상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경이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 효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며, 죽은 이후 살아있는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

셋째로 전통문화를 성경보다 높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사는 중국의 고유한 제례의식과 한민족의 효심과 무속적 사상이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제사는 한민족의 뿌리 만큼이나 긴 역사를 지닌 전통적 의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명하다. 우리의 기독교는 항상 이러한 도전을 받으면서 성경에 근거하여 문화를 창조하기도 하고 변혁과 개혁을 이루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독교는 이러한 이교적인 우상숭배의 의식을 과감하게 배척해야 하며, 전통문화를 빙자하여 기독교 의식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는 모든 요소는 배제되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전통문화를 강조한 나머지 이러한 조상숭배에 대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행위이다.

· 추도예배에 대하여

한국의 기독교인의 상당수는 조상의 기일이나 명절을 맞이하면 그냥 지내기에 서운한 느낌을 갖는다. 이 이유는 효심의 발로일 수도 있고, 주위의 분위기가 원인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제사를 한국적 기독교 문화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추도예배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추도예배에 대한 의례 원칙이 교단의 헌법적인 차원에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추도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수련회를 다녀와서 ◇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어서

이번 수련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수련회였습니다. 정말 주님께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주님의 참 사랑도, 구원의 확신도 얻었습니다.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꼬박꼬박 지키며 할 것이고 성경도 열심히 볼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믿음이 있는 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인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온전하게 지배하시며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고

첫째로 추도예배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 역사나 현재 세계의 교회에서 이러한 추도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추도예배를 죄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형편과 입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다. 기일이나 명절에 추도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둘째로 추도예배에서는 제사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십자가나 사진을 두고 절한다면 이것 역시 우상숭배이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면 제사에서 말하는 강신(降神)과 강복(降福)과 다를 바 없다. 단지 가족들이 먹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라면 무방할 것이다. 추도예배의 목적은 부모님의 신앙과 정신을 후손이 이어받자는 내용이어야 한다. 죽은 부모를 위한 일체의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죽은 자의 영을 위한 기도나 그 영에게 간구하는 일은 성경의 교훈과 위배된다.

마치는 말

제사는 그 어원과 배경, 내용과 대상과 과정의 모두가 인간이 신에게 숭배하는 행위다. 단순한 효도심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초월적 신에게 제사드리는 행위가 되므로 분명한 우상숭배이다. 효도는 우리가 이 땅의 장막에서 생활하는 사회학적 관계 내에서 유효한 것이지만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는 심계명을 위배하는 죄가 되며, 전통적 이교 문화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끌어 들이는 모든 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제사는 한국의 전통적 문화이지만 기독교적 가르침과 충돌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와 순교자의 피가 증거하고 있다. 오직 우리들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못한 자를 무시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것입니다.

수련회에 가기 전까지는 늘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것 저것 요구와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수련회에서 특히 신앙에 장애인 선교단을 통해서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딸이니 이제 저는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또 온전한 몸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 다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건 바로 저 주연이랍니다. 정말 전 수련회를 통해 많이 깨닫고 얻고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계명 어기지 않고 봉사하며 생활할 것입니다. 잘하나 지켜봐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을 사랑합니다. 하 주 연(중동2부)

●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가면서 ●

나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고 3 시절

신 성 수
(대학부 1년)



93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던 교회였기에 참다운 신앙은 없었고 타성적으로 다니던 그 발길마저 교회에서 있었던 작은 일을 핑계삼아 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 앉았던 그 5년간 저는 많은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인들을 따분한 사람으로 격하시키기도 했고, 예수님의 신성(神性)을 부인하는 이야기에 동조하기도 했으며 다른 종교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릇된 길로 나가는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주셨습니다. 기도원에 다녀오신 어머니는 제게 교회에 나가기를 명하셨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께 거역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대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대답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 맞지 않는 큰 옷을 입으려 하느냐. 고등 학생에게 맞는 옷을 입거라'

고등부를 통하여 저에게 주실 많은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고등부에 출석할 마음을 먹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 하셨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참석한 첫 주일, 저는 많은 친구들과 후배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5년간의 죄악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멀리 하다 보니 당연히 친구가 없었고,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던 제게 하나님께서 반장이라는 직책을 주셔서 저를 적극적인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 일을 계기로 일·반장 수련회에 참석케 하셨습니다.

기도원이라는 곳에 처음 가본 그때, 솔직히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임원들, 반장들이라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친구들일텐데 이제야 시작하는 내가 혹시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을 때 저는 슬그머니 방에서 빠져나와 기도원 뒷편의 산에 올랐습니다. 어슴푸레 보이는 길을 따라 가다보니 생각하지도 않았던 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하나님께 다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반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가도를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자"라는 설교 말씀을 들은 후 학년별로 모인 자리에서 5년간의 행동을 고백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난 저의 말을 흔쾌히 받아 들어준 친구들이 고마웠고 학년장으로 봉사할 기회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된 고 3 한해를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냈습니다. 흔히들 고3은 교회마저도 등한히 하고 공부해야 하는 시기로 오인하고 실제로 교회에 결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을 그냥 보내고 고3이 되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께서는 교회활동에 적극적인 저를 염려하시고 소극적으로 1년을 지내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5년간의 주님 없이 지낸 경험을 해 본 저는 그런 요구를 받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저녁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주일엔 종일 동안 교회에서 지내는 저에게 후배들과 친구들은 '고3이 공부 안하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상 끝까지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좋은 말씀을 모르고 지낸 것이 후회스러워 더욱 열심히 읽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뤄주시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고 주일에 공부하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 주중에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일을 꼭 지키려는 저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일에 공부하는 것을 따라 갈 수 있었습니다.

진로문제, 성적문제로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속에서 지내며 진학할 학과를 정할 수 있었고 합격의 기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중심이 저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뀐지 1년이 되는 요즘, 저는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제 마음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제 몸과 마음을 바쳐드리기로 다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하나님임을 기억한다면 승리의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을 붙들어서.
· 김창인 목사님 : 8일(화)빌리 그래함 목사 평양 방문 보고회 축도
· 신성종 목사님 : 7일(월)강남구 교구협의회 조찬 기도회 설교
2.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북한 땅에도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4.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서 주셔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5. 새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총을 내려 주소서.

설날 연휴로 <주간중현> 휴간, 금요일집회 및 구역예배도

금주 2월10일 설날을 맞아 계속되는 연휴 또한 2월11일(금)의 구역예배와 금요일집회도 로 인해 2월13일자 <주간중현>이 휴간한다. 모이지 않게 된다.

이름없이 해외에서 선교에 힘쓰는 중현의 성도로부터 온 소식

그들의 윤리는 크리스찬보다 우월하고 동양신에 대한 무관심, 한국 종교에 대한 거리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리켜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해 문안드립니다. 여러분과 우리 중현교회 위에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의 은총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3년 12월은 정말 바빴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렇다할 일도 못했는데 마음도 몸도 바빴던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카드도 생각하던 생략이 되어버린 크리스찬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주보와 개간지, 만나는 정말 큰 선물이고 좋은 선물로 이곳 일본 교인들과 나누며 전달하는 복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억하시고 보내시는 성의에 보답코저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탐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日本深川(일본기독교단)교회에 2년간 섬기다가 동경제일교회(주재원과

로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주의 목사님이 안계시는 동경에 합동교단 목사님으로서는 처음 오신 터라 교단이나 교회에서 낯설고 물설은 것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합동측 선교사님도 몇분은 계십니다만 선교사들이시고 정식 목사로는 우리 중현 출신의 김 목사님이 처음이지요. 무척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기도응답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언어훈련, 문화적응, 교인파악 등으로 분주하시고 말씀이 좋아서 부흥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회 회원들의 내실에 동역해 드리고 통역과 심방이 필요할 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곳 교인은 현재 100여명 내외입니다. 주로 주재원과 재일교포, 그리고 일본인 3-4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정과 교회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영혼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감청하지 않으면 지치고 말 것입니다. 능숙치 못한 통역에도 지혜와 노력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중현교회 일어예배부가 제게 좋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항상 준비를 게으르지 않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성도님의 격려와 도우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1994. 1. 12 동경에서 김보경

김보경 집사는 제11교구 구역장으로 또 일본어에 배워서 교사와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다가 남편(오종동 집사)의 직장관계로 일본 동경에 건너가 현재 평신도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데 교회 앞으로 보내는 현지소식을 여기에 실는다. <편집자>